선암사 석가모니 괘불탱화 등 보물 지정

되돌아 온 수월관음도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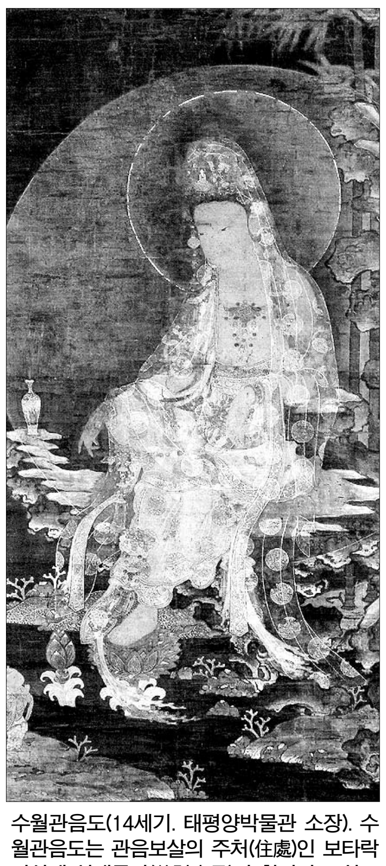
문화재청 발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25일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 일괄'을 보물 제1419호에 지정하고 '수월관음도'와 '경주괘릉석상 및 석주 일괄'을 보물지정 예고했다.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은 본존불만 등장시킨 독존도(獨尊圖) 형식의 괘불화로 중앙에 홍련좌(紅蓮座)를 딛고 서 있는 입불상이 화면에 가득 차도록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조성연대가 명확하여 화원인 '쾌윤(快允)' 작품의 초기 경향과 함께 조선시대 18세기 중엽 경 불화 화단의 흐름을 살피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알맞은 신체 비례에 유려하고 정밀한 필치로 세련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수월관음도는 해외반출 문화재를 태평양박물관이 구입해 환수한 것이다. 변색과 덧그린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화면 구성이 충실하며 고려불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데다 국내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희소성과 이미 보물로 지정된 두 점의 수월관음도에 손색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 수월관음도는 지정예고기간에 태평양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031)285-7215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수월관음도(14세기. 태평양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의 주처(住處)인 보타락가산에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찾아가 보살도(菩薩道)와 보살행을 구하는 <화엄경>의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귀' 달린 백제금동광배 출토

부여 관북리서

국내에서 출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양식의 백제시대 금동광배가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11월 23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백제유적'에 대한 10차 발굴조사 결과 6개의 귀(고달이)가 달린 금동광배 등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광배는 사각형 돌출부가 양쪽으로 3개씩 모두 6개가 마련된 형태로, 북위(北魏) 보태(普泰) 2년(532년)이라는 제작연대가 있는 금동보살일광삼존입상과 유사한 형태로 백제와 북위의 교류관계를 추정케 해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광배의 길이는 11.8cm지만 완제품은 12.8cm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너비 10.3cm, 두께 0.25cm.

광배는 부처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불상 뒷면에 형상화한 빛의 문양을 일컫는데, 귀가 달린 광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첫 출토된 6개의 귀가 달린 금동광배.

이 밖에 '관북리 백제유적'에서는 백제시대 왕궁이나 관아에서 물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곽창고 4기와 석곽창고 1기 등의 대규모 저장시설도 확인됐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기사 넘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은 쉽니다.

"한국 간화선은 돈오점수 수행체계"

보조사상硏 '간화선 수용과 … ' 학술대회… '돈점 논쟁' 재점화 관심

또다시 돈점 논쟁이 불붙을 것인가. '간화선 수용과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주제로 11월 27일 법련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제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임제종의 간화선의 수행체계는 돈오점수다"(인경 스님) "보우 · 나옹 · 백운 스님 간화선의 근원은 지눌 · 혜심 스님이다"(김방룡 박사) 등의 주장으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 반박하며 돈점문제를 이슈화함에 따라 돈오돈수론 진영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간화선에 대한 반성과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주요 논문 및 그에 대한 논평 요약.

인경 스님

윤원철 교수

김영욱 박사

김방룡 박사

"이치는 단박 깨닫고 일은 점차 이뤄져"

● 인경 스님 '간화선과 돈점문제'

한국 간화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대혜종고 · 몽산덕이 스님의 간화선은 돈오돈수의 수행론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 두 스님은 간화선을 돈오돈수가 아닌 돈오점수의 수행체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이치는 단박에 깨닫지만 일은 점차로 이뤄진다"고 했고, 이참정과 교환한 서신에서는 "깨달았다고 오만하지 말고 숙세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겨 번뇌가 발생하는 인연과 업을 바꾸는 공부를 계속 수행할 것"을 부촉하고 있다. 몽산 스님 또한 <몽산화상보설>에서 "이치는 단박에 돈오하지만 일은 점차 닦는다(漸修)"며 "오랜 번뇌의 습기를 제거해 과거의 행리처(行履處)를 바꿀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간화선에서의 돈오는 증오(證悟)다. 번뇌가 단박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경각이 아니며, 지해(知解)의 병통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해오(解悟)도 아닌 것이다.

간화선이 성립된 이후 송 · 원대 어록에는 돈수란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경전 교판시 사용된 술어로서, 종파불교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보우 · 나옹 · 백운은 지눌 스님 영향 받아

● 김방룡 박사 '여말 삼사(三師)의…'

태고법통설은 태고보우 스님이 중국의 임제종 스님이었던 석옥청공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석옥청공 스님이 태고보우 스님을 인가한 것은 사실이라 해도 석옥청공 스님과 태고보우 스님간의 사상적 연계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보우 스님이 석옥 스님을 찾은 것은 국내에서 무자 화두를 타파한 뒤의 일로, 깨달음의 경지를 확인하고 임제종 본분사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지 화두를 받아 참구하거나 수행법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둘의 선문답을 통해 입증된다. 나옹혜근 스님과 평산처림의 관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보우 · 나옹 스님에 대한 지눌 · 혜심 스님의 영향은 분명하다. 보우 스님이 알음알이의 병통을 극복하기 위해 무자 화두를 든 점이 지눌 스님과 닮아 있고, 백운 스님의 선교일치 사상 또한 보조 스님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보우 · 나옹 · 백운 스님은 보조 · 혜심 스님을 거쳐 완성된 고려 간화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철 스님 사상은 학술이론 아닌 설법

● 윤원철 교수 논평

성철 스님이 임제종 간화선의 종장으로 인정하는 대혜 스님의 수행론이 돈오돈수임을 논증함으로써 돈오돈수를 임제종의 정통 수행법이라 주장했던 바와 같이 발표자는 대혜 스님의 수행론이 돈오점수설임을 논증함으로써 임제종은 돈오점수의 수행체계임을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다. 성철 스님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방법이라 할 만하다.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은 학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대적인 학문 방법과는 거리가 있어 개념의 정의나 그것들을 연결한 명제에는 자의적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내면 성철 스님의 이론체계를 어렵지 않게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사상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이론이 아닌 한 선사의 설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三師의 화엄과 선사상 일치 수긍 안돼

● 김영욱 박사 논평

무자 화두는 대혜종고 스님 이래 대표적인 화두 공부 중 하나였으므로 지눌 · 혜심 스님의 영향으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화엄과 선사상의 일치가 삼사에 나타난다는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지눌 스님이 교선일치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혜심 스님의 화엄 도리 인용은 선의 정취를 드러낼 목적으로 사용되며 보우 · 나옹 스님 경우 또한 그렇다는 점에서 '일치'라 말할 수 없다.

돈오와 점수를 범주로 간화선사의 사유체계를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참구 방법과 화두의 본질적 속성상 돈오일 수밖에 없다. 간화선에서 디디고 올라갈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화두를 공부하는 이의 분별을 자극하여 망상을 걷어내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5차 정기발표회

한국불교연구원, 4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삼국 · 신라시대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제 5차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김병곤 신구대 강사의 '나당연맹의 성립과 신라 구법승의 역할', 문무왕 위덕대 강사의 '초기 신라승들의 구법루트'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02)762-5624

"파사석탑 · 삼랑성 · 참성단을 국보로"

국사찾기협의회 ·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청원

사적 제136호 마니산참성단, 사적 제130호 정족산삼랑성, 경남지방문화재자료 제227호 허왕후릉파사석탑을 국보로 승격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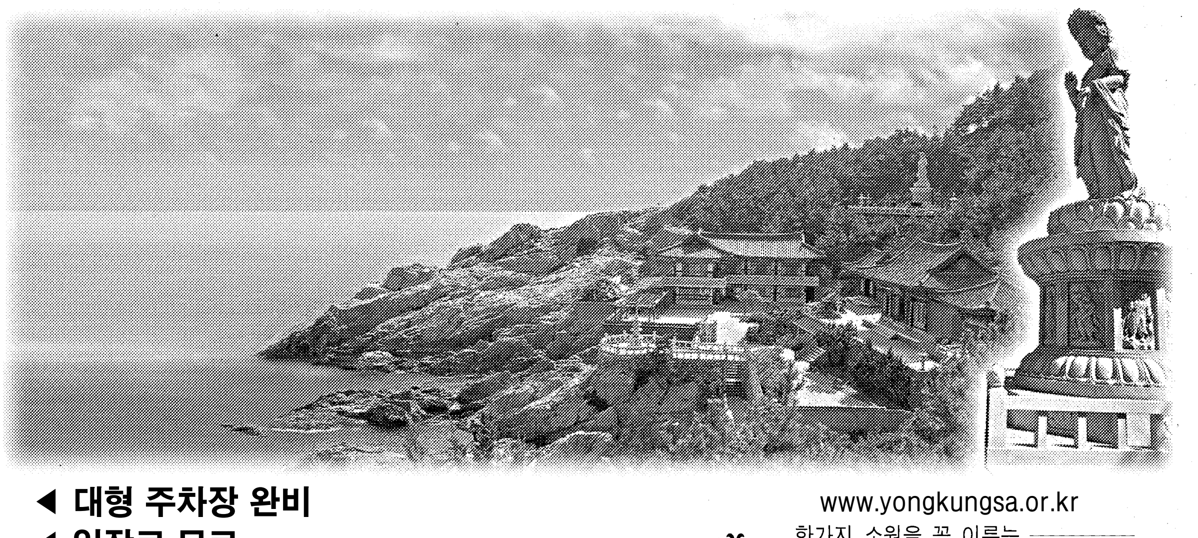
국사찾기협의회(회장 고준환)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대표 이성민)는 11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2천95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국보승격지정이유서와 함께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고준환 국사찾기협의회회장은 "역사의 뿌리를 찾아야 국가가 바로 선다"며 "이들 유물은 단군조선과 가야의 실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허왕후릉 파사석탑.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